

국제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자



전 동 용
(대한양돈협회 회장)

전국 양돈인들의 대변지이자 양돈산업의 길잡이인 「월간양돈」이 7월 1일로 창간 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대양돈산업의 초창기인 79년에 창간된 「월간양돈」은 전양돈인들의 권익보호와 양돈산업의 발전이라는 대명제하에 그동안 양돈농가들에게 각종 사양기술과 양돈정보를 제공해 왔을 뿐만 아니라, 양돈산업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등 양돈인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월간양돈」이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헤치고 오늘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음은 전국의 양돈농가를 비롯하여 관계기관과 학계·업계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국의 양돈인 여러분!

「월간양돈」 창간 8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 양돈사에 길이 기억될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야 말았읍니다. 전양돈인들의 꿈이자 염원이었던 「양돈회관」의 건립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돈회관」의 건립이야말로 그동안 전양돈인이 고대하던 숙원사업으로서 한국 양돈사에 길이 남을 금자탑이 아닐 수 없으며, 양돈산업의 힘찬 도약을 위한 주춧돌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작년초 양돈인 스스로의 힘에 의한, 양돈인을 위한 터전을 마련키로 결의하고 벽돌 한 장도 내가 쌓겠다는 일념으로 양돈회관 건립을 추진해 왔읍니다. 이 역사적인 과업에 양돈인 모두는 확고한 신념과 긍지를 갖고 너나없이 발벗고 나섰으며 일로매진해 왔읍니다.

이와같은 우리 양돈인의 결집력은 이제 우리나라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어 축산업계를 선도하며 양돈부국을 이루는 중요한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분회는 앞으로 이 양돈회관을 활용하여 양돈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각종 연구소 설치와 돈육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센터로 운영하는 한편, 국내외 시장수요유지와 창조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똑바로 주시해야 할 점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돼지고기 통조림을 비롯한 가금육 통조림, 소시지 유사제품류 등의 수입 자유화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첨단과학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세계는 지금 하나의 경제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현상에 따라 어떤 분야든지 국제경쟁력이 약하면 국제사회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살아남더라도 상대국과의 거래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보호하고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물밑듯이 밀려오는 수입개방 압력으로부터 우리의 양돈산업을 보호하고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농가경영 합리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로 비교우위에 서는 길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외국에 비해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여건을 탓하거나 남에게 의지하려 하기에는 국제사회가 너무나도 냉혹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돈인 각자가 양돈산업의 주인이자 주체자임을 명심하고 생산자 단체인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 수입자유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돼지 생산의 과잉으로 인한 양돈불황 문제입니다.

본회는 작년 중반부터, 금년 하반기이후 양돈불황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자율적인 모돈감축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각종 매체를 동원, 이를 홍보해 왔습니다.

양돈업은 타축종에 비하여 비교적 오랫동안 가격안정 및 경기호전으로 일부 양돈농가가 사육두수를 급격히 늘리고 타산업 종사자들의 신규 양돈업 참여로 공든 탑이 허물어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금년 6월 말의 사육두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어난 4백만두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5월중 양돈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한 23만톤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79, '83년의 양돈불황을 뼈저리게 체험한 바 있는 우리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계속 두수를 늘려나간다면 우리는 다시한번 깊고 어두운 불황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양돈산업의 안정을 깨뜨려서는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양돈인들은 "나"만이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속에서 자율적인 생산조절을 기하고 상호 신뢰를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양돈산물의 수급조절과 돈육제품의 수입자유화에 대응해 아우성만 지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돼지고기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전개해 소비를 늘리는 한편, 생산성을 제고해 역으로 돈육을 수출하는 과감한 시책을 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조금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본회가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검정소 검정을 비롯해 농장검정과 일반검정을 확대시행해 종돈개량에 박차를 가해야겠습니다.

본회는 검정사업의 정착화와 확대를 위해 남부지방에 제2검정소의 설립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월간양돈」은 앞으로 이와같은 양돈업계 제반 문제점에 대한 기본인식을 갖고 책임을 다할 것이며, 지금까지 「월간양돈」을 아껴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와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